

2023년도 사업 및 행정에 관한 행정감사 의견서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직무) ④항 및 제49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의거하여, 대한장애인양궁협회의 2023년 12월31일로 종료된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및 업무행정 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감사의견을 제출합니다.

1. 지난해에도 우리 협회 임원 구성 시 경기인 출신 및 여성임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24년도 임원구성 시 양궁경기인 출신, 체육인 전문가, 여성임원 선임이 요구됨.**
2. 각종 민원 대응조치사항,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실적, 사업별 비품 관리상태, 직원 근태사항은
→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3. 우리 협회 각종 위원회 구성은 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체육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外 6개 위원회는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장애인양궁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경기기술위원회, 심판위원회, 지도자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대회운영규정 제 개정 등 장애인양궁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협회 각종 사업 홍보 및 성과 등 홍보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함.**
4. 2022년도 국제대회 참가 성적 부진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4 파리패럴림픽 출전권 5장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음. 다가오는 3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월드랭킹이벤트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대한민국 장애인양궁 위상을 널리 알려주길 바라며, 또한 2024 파리패럴림픽 출전권을 추가 획득하여 前 대회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봅니다.
5. “경기도장애인양궁협회”, “울산광역시장애인양궁협회”는 **협회장 공석으로 빠른 시일 내 정상화가 필요함.**

6. 2023년도 협회사무국 계약직직원 채용으로 직원 개인 업무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계약직 직원이 이어지지 않아 직원 개인 업무량에 다시 많은 부담감이 예상되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필요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협회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과감히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특히 사무국규정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됨.

7. 장애인양궁 선수증감 부문은 2022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중앙 협회와 시, 도 협회는 지속적으로 신인선수 발굴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하고, 특히, 중앙협회 전임지도자는 신인선수 경기력향상은 물론 신인선수 및 우수선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가맹단체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88명 → **2023년도 91명(증감률 103.4%)**

*** 2023년도 가맹단체 평가결과 : 30개 가맹단체 중 4위 선정(우수 가맹단체)**

8. 대한장애인양궁협회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상태 : 매우 우수

9.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사회공헌활동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후원금(부회장·이사) 납부현황 : 보통

10. 2023년도 사업결과 및 자체예산에 대한 사업실적

제1회 페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가 신설되어 시, 도 협회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대회 경기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대회일 수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국장애인체전과 같이 대회운영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전국대회 경기운영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도 장애인양궁협회장과 각종 위원회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선수들의 고충과 장애인양궁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항상 열린 협회 운영으로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 단합되고 화합하여 장애인양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협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1월 16일

대한장애인양궁협회 행정감사 김 선 공 (인)

